

‘호남 소외 상징’ 경전선 전철화 예산 지원 받나

〈광주송정·순천〉

정부 예타 지침 변경 균형발전 가중치 높아

광주시, 국회에 용역비 48억 지원 요청키로

전국 4대 간선철도망(중앙·호남·경부·경전) 중 유일한 단선·비전철구간으로 ‘호남 소외’의 상징과도 같았던 경전선(광주 송정~순천·116.5km·2조304억원) 전철화 사업의 정부 예산 지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용되는 경제성의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기로 한 데 따라 경전선이 첫 번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전선 전철화사

업은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경제성이 상향(B/C 0.74→0.84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 가중치를 더 주다보니 경전선의 B/C가 소폭 상승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경전선 기본계획용역비 등 48억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B/C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최소 기준점인 0.8을 넘어섰기 때문에 내년 정부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일제강점기 건설(1930년) 후 90여년 동안 개량되지 않은 유일한 철도인 경전선이 예비타당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첫삽을 뜨게 된다.

최근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했는데 과거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균형발전 25~30%의 심사 배정을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균형발전 25~35%로 변경하며 경제성을 낮추고 균형발전 비중을 소폭 높였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에 SOC 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과거에 비해 대부분의 SOC 예산이 크게 늘어 넘어섰기 때문에 내년 정부 예산 지원이 예상되는 사업 중 하나인 경전선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0년)에 반영되고 2012년 대선 당시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뒤, 2013년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과거 예타가 진행됐지만 B/C가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광주~부산 전체 구간 중 순천~부산 노선은 이미 완공된 상태다.

경전선이 전철화되면 광주~부산 철도 소요시간은 현재 5시간 30분보다 3시간 이상 단축된 2시간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경전선 전철화의 B/C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광주시가 48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내년 예산 정부반영액에는 단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았다.

○요광기자 kroh@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정책

노동계 긍정 인식 확산

市-민노총 운수노조 협약

광주시의 대표 정책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노동계에 확산되고 있다.

시는 2일 오전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김선수 광주전남본부장,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조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2018 사회공공협약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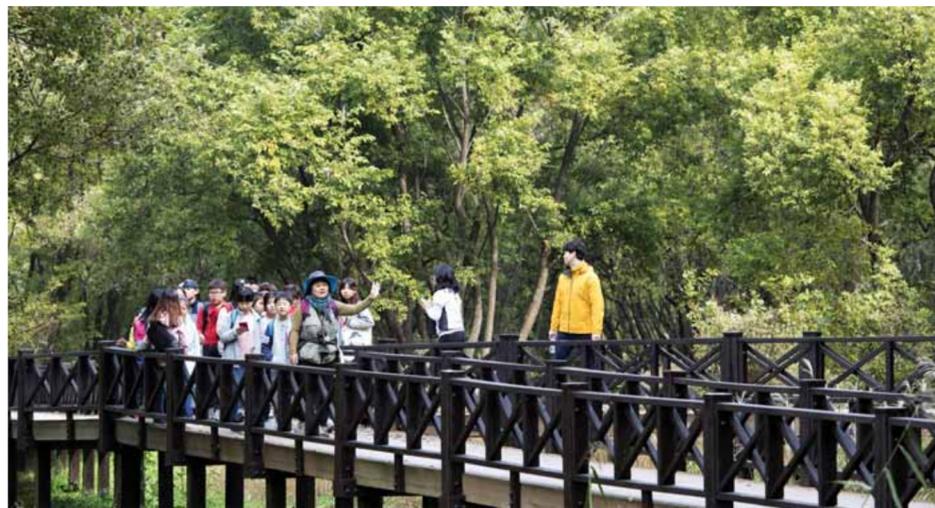
협약에는 ▲공공부문 광주형 일자리 성공 추진 ▲공공기관(명예)근로감독관·근로자(노동)이사회 도입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 개선 등 노동존중 행정시스템 구축 ▲일터 민주화 상호 협력 등 내용이 담겼다.

또 모범사례로 알려진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2015년 4월 현역 단체장으로서 전국 최초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광주시와 공공운수노조는 노·정 파트너로서 소통과 협력을 해왔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는 이날 협약까지 체결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도를 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정착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호 자연생태 현장학습

2일 광주시 북구 문화초등학교 학생들이 충효동 광주호 호수생태원을 찾아 숲해설사로부터 호수 인근의 자연생태를 들으며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지역 산단 상당수 분양률 50%도 안돼

수백억 들어 조성 불구 저조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남지역 산업단지 상당수가 분양률 50%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목포 대양산단 분양률은 33.8%, 목포 세라믹산단 23.0%, 나주 혁신산단 46.0%, 담양산단 19.0%, 장흥 바이오산단 27.4%, 강진산단 12.9%, 영

광 대마산단 52.2% 등이다.

지난해 말 분양률은 대양 18.1%, 세라믹 27.1%, 혁신 33.1%, 담양 5.5%, 바이오 19.1%, 강진 4.2%, 대마 45.3% 등이었다.

이들 산단이 낮은 분양률을 보이면서 전남도가 관리 대상에 올랐다.

박 의원은 “올해 들어 분양률이 오르는 했지만 대마산단을 빼 나머지 산단의 평균 분양률은 36%로, 50%에도 크게 못 미친다”면서 “수백억~수천억원을 들여 조성한 산단의 분양률이 여러 대책에도 여

전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투적인 분양·투자 유치 정책보다는 전기차, 태양광 등 유행시장을 공략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기차 전문 산단을 조성한 대구시 사례를 제시하며 “전남은 농도인 만큼 전기 농기계 공장 등을 유지하고 유통·판매까지 관리하는 정책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안서 재선충병 발생... 소나무류 이동 제한

신안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방제에 나섰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 압해읍 분매리 인근 산림에서 재선충병 의심 증상을 보인 소나무 7그루를 발견해 국립 산림과학원에 진단 의뢰한 결과 감염목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산림과학원, 전남도, 신안군 등은 중앙방제 대책회의를 하고 방제체제에 돌입했다. 역학조사반은 현장과 소나무류 취급자 등을 조사해 감염 시기, 원인, 경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를 다 음 따가지 모두 제거하고 발생지역 주변

등 50ha 나무에 예방주사를 놓을 방침이다. 발생지역 반경 2km 이내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직경 2cm 이상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농가 등의 조경수목은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확인증을 받은목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부터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무안 등 6개 시·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생겼다. 다행히 지난해 4월 6천316그루였던 피해 고사목은 3731그루로 40% 감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반려동물 유기 갈수록 늘다

9월말 보호소에 2800마리

광주지역에서 버려지는 개와 고양이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동물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 수는 9월 말 현재 2801마리에 달했다. 지난 2014년 1590마리였던 입소 두수는 2015년 1644마리로 소폭 증가한 뒤 지난해 2415마리로 급증했다.

올해부터는 보호소에 들어온 뒤 폐사한 새끼고양이(1222마리)까지 실체포

함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버려지는 동물이 줄지 않는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올 들어 9월까지 보호소에 들어온 개(1301마리)만을 기준으로 하면 551마리(42.1%)가 새 주인을 만나 입양됐다. 370마리(28.4%)가 주인에게 되돌려졌으며 215마리(16.5%)와 159마리(12.2%)는 안락사 됐거나 폐사했다.

시는 민간단체가 맡아 운영중인 광주 동물보호소에 올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3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요광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민선 6기 도지사 공약 마무리 총력

전남도가 민선 6기 도지사 공약 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서재 필실에서 도지사 권한대행인 이재영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7년 하반기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민선 6기 공약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항은 총 76건으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36건을 완료했다. 실천계획에 따른 연도별 목표 대

비 이행률은 84.8%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 권한대행은 “도지사 공약은 비록 도지사 공백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도정의 연속성을 갖도록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6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순히 이행 공정률만 가지고 공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말고 성과 중심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권오봉 전 광양만권청장

더불어민주당 입당

권오봉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권 전 청장은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을 방문해 입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1일에는 여수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입당 배경과 함께 여수시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권 전 청장은 “35년간 뒤은 행정경험

을 바탕으로 여수시 민들이 더 큰 자부심을 갖고 미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권 전 청장은 여수고교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단열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 패널

아파트, 학교, 주택,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옥상 시공

- ▶ 방수, 단열 이중효과!
- ▶ 냉·난방비 절감효과!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합리적 가격, 단 한번 시공!

※ 무료 출장 견적내드립니다.

목포권, 순천·여수권 등 대리점 모집(영업 및 시공)

TWIN 트윈스틸 (모던건설) **H 010-9229-3530** **062-5 31-3530**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